

## 산림청 -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직접일자리/공공업무지원형
- 소관부처/담당부서 : 산림청/산림휴양등산과
- '21년 평가등급 : 개선 필요(감액)

###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자연휴양림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운영·관리 하고, 산림휴양 정보 및 편의 제공
- (사업 내용)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및 순찰(방역, 탐방로 안전관리, 야간순찰 등) 및 이용객에 산림휴양 정보제공 및 활동 지원

### □ 예산 및 재원 : 일반회계

〈표 1〉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예산 및 재원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 (A)	추경	결산 (집행률)			(%)
□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1,524	347	1,810 (96.7)	1,547	23	1.5

### □ 추진근거 : 산림기본법 제20조(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 □ 주요 지원대상

- 농·산촌 주민 및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 □ 전달체계 : 산림청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본소) → 4개 지역팀 (북·동·남·서부)

###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 최저임금 인상 반영(68,720원/일 → 69,760원/일)

##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 참여자 현황

- (전체) 산림서비스도우미 참여자는 135명으로 전체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0.01%에 해당하며, 동일유형(공공업무지원형) 참여자의 3.0%에 해당
- (성별) 성별로는 남성 참여자의 비율이 65.9%로 여성(34.1%) 참여자에 비해 높은 편
- (연령별) 연령대별로는 장년층(55~64세)참여자 비율이 4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년층(35~54세)이 22.2%, 고령층(65세 이상)이 15.6%, 청년층(15~34세)이 14.8%의 순으로 나타남

〈표 2〉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사업 참여자(개인) 현황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직접일자리 전체	970,557 (100.0)	327,960 (33.8)	642,597 (66.2)	36,794 (3.8)	58,650 (6.0)	100,584 (10.4)	774,529 (79.8)
공공업무지원형 전체	43,513 (100.0)	15,813 (36.3)	27,700 (63.7)	1,473 (3.4)	18,499 (42.5)	17,676 (40.6)	5,865 (13.5)
산림서비스도우미	976 (100.0)	659 (67.5)	317 (32.5)	97 (9.9)	203 (20.8)	373 (38.2)	303 (31.0)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135 (100.0)	89 (65.9)	46 (34.1)	20 (14.8)	30 (22.2)	64 (47.4)	21 (15.6)

주: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 정량지표별 결과

〈표 3〉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사업 성과지표

(단위: %)

	반복 참여율	취약 계층 참여율	취업률	고용유지율	취업 소요 기간
				6개월 (180일)	
직접일자리 전체	3.1	57.3	37.7	37.8	91.5
공공업무지원 전체	6.5	46.8	47.6	31.7	80.5
산림서비스도우미	9.2	53.0	51.7	39.0	80.8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5.2	19.3	30.0	33.3	78.8

###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 주요 평가 결과

- (사업의 중요성) 본 사업의 목적은 자연휴양림 인근 유휴인력에게 자연휴양림 시설관리 등의 공공업무지원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의 중요성은 일부 인정됨
  - 국정과제 3-1(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근거한 사업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생활SOC 3개년계획’(2020~2022; 국무조정실)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 확대를 대비한 일자리 확대 필요
  -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자연휴양림 시설계약직 인력 충원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일자리사업 성과) 전반적인 사업내용이 일자리사업 보다는 자연휴양림 공공시설 유지·관리 인력 보충 목적이 강하다고 판단됨
  - 참여자 선발 과정에서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토록 하고 있고, 민간일자리 이동 지원도 지침에 반영해 안내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참여자에게 별도의 취업지원 및 연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개선 여지가 있음
- (운영의 적절성) 재원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됨
  - ‘20년 본예산에 따른 계획인원은 43개 국립 자연휴양림에 각 2명씩 균등 배분하여 총 86명(=43\*2)
  - ‘20년 추경에 의해 확보된 재원도 43개 국립 자연휴양림에 각 1명씩 균등 배분
- (제도개선 노력) 제출된 내용은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참여자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는 연관성이 부족
  - 현재 국립에만 배치된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를 공·사립 자연휴양림에도 배치할 필요성을 강조

## 4 개선권고

### □ 평가등급 : 개선 필요(감액)

○ 산림서비스도우미(20-1)와 연계를 제고·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숲생태관리인과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는 근무지(자연휴양림)가 동일하고 숲생태관리인의 담당업무\* 중 일부(시설물 관리)가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의 업무와 중복될 수 있음\*\*

\* 숲생태 관리 및 이용안내, 시설물 관리,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 기타 소속 기관의 장이 명시한 사항

\*\* 단, 산림청에 따르면 업무의 강도 등에 차이가 있음

- 양 사업을 연계 운영할 경우 업무 수행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이용객 안전사고 대응, 적절한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규모 감축이 아닌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
- 양 사업을 연계 운영할 경우 업무 수행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